

Osaka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留学生 大学？専門学校？

どこに行けば？

2020年のグローバル時代において、大阪あるいは日本全域への留学比率が非常に高くなっている。特に日本の場合、有名な大学が数多く位置しているが、それに劣らず専門学校の需要も増えてきている。

しかし、日本の専門学校の最大の弱点は、その学力が日本以外の国では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

専門学校と大学の長所と短所は確かに存在する。たとえば CA(航空乗務員)になりたい学生は普通航空学科に進学する。しかし、日本の一般的な4年制のどの大学でも航空学科は見当たらない。このように専門職または専門技術を必要とする職業、職種にとっては専門学校の卒業を必要とする。

大学の場合、専門技術より幅広い学問中心の専攻であり、実質的な技術より理論を土台にした論文の比重が大きい。専門学校とは違って一つのことに集中するのではなく、様々な学問を理解し、卒業論文を最終目標とする。

両者の学校の明確な違いは、就職を目指すのか、社会の発展に必要な学術知識を研究し応用するのかわである。

留学生の場合、専門学校に進学するためには日本語能力試験または日本語学校6ヶ月以上の在学を必要とする。しかし、大学の場合、EJU(日本留学試験)と日本語能力試験、TOEIC 700点以上を基本資格条件に面接と大学によっては本考査(特別選考)、小論文がある。このように進学に投資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間と努力、資金などにも明確な違いを見せる。

また、編入制度について、大学から他の大学への編入と専門学校2年卒業後の編入の二つに分けられる。

編入においても基本条件は上記の通りである。しかし留学生の場合、日本人の学生たちと競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決して簡単に入れるとは限らない。基本資格条件が揃ったなら、面接と小論文を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面接と小論文については、大学によって異なるので、希望する学校のサイトまたは訪問して探していただくことをお勧めする。面接と小論文の比重がかなり大きいため、しっかり準備した方が良い。

Osaka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유학생 대학? 전문학교?

어디로 가야 할까?

2020년 글로벌 시대에 오사카, 혹은 일본 전역 전 세계로의 유학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유명한 대학이 많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문학교들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전문학교의 최대의 약점은 그 학력이 일본 이외의 국가에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학교와 대학교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CA(항공승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보통 항공학과에 진학한다. 하지만 일본의 일반 4년제의 그 어느 대학에서도 항공학과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듯 전문직 혹은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 직종의 경우는 관계된 전문학교의 졸업을 필요로 한다.

대학교의 경우 전문 기술보다는 학문 위주의 전공, 실질적인 기술보다 이론을 바탕으로 논문의 비중이 크다.

전문학교와는 다르게 한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여러가지의 학문을 이해하고 졸업 논문을 최종 목표로 한다.

두 학교의 확연한 차이점은 취직을 목표로 하는것과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지식을 연구하고 응용하는 것이다.

유학생의 경우 전문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능력 시험 자격증 혹은 일본어학교 6개월 이상 재학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학교의 경우 EJU(일본유학시험)과 일본어 능력 시험 TOEIC 700점 이상을 기본 자격조건으로 면접과

대학에 따라서는 본고사, 소논문이 있다. 이렇듯 진학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 자금 등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편입 제도에 관하여서는, 대학교에서 다른 대학교로의 편입과, 전문학교 2년 졸업 후 편입 두가지로 나뉜다.

편입에 있어서도 기본 조건은 위와 같다. 하지만 유학생의 경우 일본인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들어 갈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기본 자격조건이 갖춰졌다면 면접과 소논문을 준비해야한다.

면접과 소논문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의 사이트 혹은 방문하여 찾아보는 것이 좋다.

면접과 소논문의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여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길 바란다.